

## 2019년도 6월 시행 서울시 9급 총평

### < 건축계획 >

6월 15일에 시행된 서울시 공무원시험 9급 건축계획의 파트별 출제 문항 분포는 다음과 같다.

| 파트         | 세부 구분 | 문항수 | 출제 내용                                |
|------------|-------|-----|--------------------------------------|
| 건축계획<br>각론 | 총론    | 4   | 모듈계획, BIM의 특징, 단지계획(주거밀도), 대중교통 중심개발 |
|            | 극장    | 1   | 용어, 공연장 계획                           |
|            | 박물관   | 1   | 박물관 동선계획                             |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사 | 1   | 한국건축가의 작품                            |
| 서양건축사      | 서양건축사 | 1   | 건축양식의 특징                             |
| 건축환경       | 건축환경  | 3   | 친환경계획, 열환경(습공기), 음환경(소음)             |
| 건축설비       | 건축설비  | 2   | 급수방식, 공기조화방식                         |
| 건축법규       | 건축법   | 5   | 방화구획, 피난 보행거리, 피난계단, 건축물의 용도, 높이 산정  |
|            | 주차장법  | 1   | 장애인 주차구획                             |
|            | 편의증진법 | 1   | 접근로 기울기, 대변기 계획                      |
|            |       | 20  |                                      |

이번 서울시 9급의 건축계획 시험은 2019년 2월이나 2018년 6월에 시행되었던 시험과 **출제패턴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건축환경과 건축설비가 3문제 및 2문제로 많이 출제되었으며 건축계획 각론의 출제비율이 감소한 대신 건축법의 출제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꽤 올라갈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건축환경에서는 축열벽방식의 특징, 절대습도와 상대습도의 구분, 반사재의 적용에 대해 보통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건축설비는 급수방식과 공기조화방식의 특징에 대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또한, 일곱 문제가 출제된 건축법에서도 방화구획에 대한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들이 기출문제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은 3문제(방화구획, 한국건축가의 설계 작품, 대중교통 중심개발) 정도 출제되었으나 전체적인 출제패턴이 평상시와 많이 다르게 출제되어 평소 시험의 난이도보다는 약간 올라간 것으로 보이며, 2018년도에 시행된 서울시 시험과 지방직 시험과 비교해 **건축계획의 평균 점수는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건축구조 >

6월 15일에 시행된 서울시 공무원시험 9급 건축구조의 파트별 출제 문항 분포는 다음과 같다.

| 세부 구분  | 문항수 | 출제 내용                        |
|--------|-----|------------------------------|
| 구조역학   | 4   | 캔틸레버보의 처짐 계산, 보의 휨모멘트 계산     |
|        |     | 변단면 보의 휨응력 계산, 트러스의 부재력 계산   |
| 기초구조   | 3   | 주동토압, 현장재하시험,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 기준 |
| 목구조    | 1   | 경골목구조의 내력벽 설계                |
| 조적구조   | 0   |                              |
| 기타구조   | 1   | 셀/절판구조의 설계기준                 |
| 설계하중   | 2   | 활하중의 저감                      |
|        |     | 내진설계범주 및 내진설계의 중요도계수         |
| 철근콘크리트 | 6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 기준            |
|        |     |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강재 기준              |
|        |     |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최소 두께            |
|        |     | 특수철근콘크리트의 연결보                |
|        |     |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부재별 피복두께           |
|        |     | 균열모멘트 계산식                    |
| 철골구조   | 3   | 인장재 설계기준                     |
|        |     | 접합부 설계기준                     |
|        |     | 매입형 합성부재의 구조제한               |
|        | 20  |                              |

이번 건축구조 시험은 2월 23일 시행된 서울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로 **약간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파트별 출제 문항 분포를 살펴보면 구조역학에서 평소와 비슷한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풀이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 평이한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기초구조에서는 주동토압의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뿐 현장재하시험과 현장콘크리트말뚝에 대한 문제는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었다. 조적구조에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목구조와 기타구조에서는 그동안 출제된 적이 없는 상당한 수준의 문제들이 한 문제씩 출제되었다.

설계하중에서의 2문제는 평범한 난이도의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었으며,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철골구조의 문제 중 구조기준의 깊이 있는 학습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은 1~2문제만 출제되었고, 대부분이 일반적인 개념과 특징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 구조시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문제의 비중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의 문제풀이 시간이 약간 단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면 이번 시험은 2월 23일 시행된 서울시 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2018년도에 시행된 서울시 시험과 지방직 시험과 비교해 **건축구조의 평균 점수는 약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직 시험과 같은 날 시행되어 결시율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합격 컷이 꽤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